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의 교회정착을 위한 목회적 돌봄 방안 연구

김 충 일* 김 규 보**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이 정통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고, 교회가 이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정착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적 돌봄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신천지, JMS, 안상홍증인회 등 세 개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반 구조화 면담을 통해 탈퇴 전·중·후의 경험과 교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탈퇴자들의 교회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교회 공동체의 냉소적·거부적 태도, 거부당할 것에 대한 피해의식, 교리적 혼란과 미충족된 지적 욕구가 도출되었다. 반면 교회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수용적 태도의 교회 공동체, 동일 경험자와의 공감·지지 관계, 은혜의 복음 경험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교리적 접근, 수용적 교회 공동체 형성, 가정의 회복 돕기, 교회 공동체의 인식 변화, 은혜의 복음 제시라는 다섯 가지 목회적 돌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이단·사이비 단체 교주들의 고령화로 인해 대규모 탈퇴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한국교회가 탈퇴자들을 교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준비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 교회정착, 목회적 돌봄, 종교중독, 회심 사역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본부상담소 상담실장

**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 이 연구는 충신대학교 김충일의 석사학위 논문(2024년 8월, 지도교수: 김규보)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단·사이비 단체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한 대처 방법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먼저 성도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예방 사역이 있고, 다음으로 이단에 빠진 성도를 상담하여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회심 사역이 있다. 그러나 두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예방하더라도 여전히 미혹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회심 사역의 한계는 더욱 명확하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기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협회장 진용식에 따르면 매년 회심 사역을 통해 회심하는 사람은 대략 500여 명에 불과한데(정윤석, 2017), 신천지에만 매년 2~3만 명이 미혹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이단·사이비 단체를 스스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방대한 교세를 유지해 온 사이비 단체도 예외 없이, 영생을 약속하던 교주가 사망하면 오랫동안 감춰졌던 사기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단번에 대량 이탈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70만 이상의 교세를 자랑했던 박태선의 천부교는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허병주, 2018). 더하여 지금이 특히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 노령화로 인해 사망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95세, 통일교의 한학자와 안상홍증인회의 장길자는 83세, JMS의 정명석도 적지 않은 나이여서, 교주 사망 이후 이탈하거나 혼란을 느낄 사람들을 교회에 다시 정착하게 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김충일, 2020a).

그러나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이탈한 이들이 아무 노력 없이 교회로 정착하지는 않는다. 연구자가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이탈자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 교회정착에 실패하였다. 그들이 찾아간 대부분의 교회는 이탈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였으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실제로 신천지 탈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명의 연구참여자 중 교회에 잘 적응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하였다(김명수, 2021).

본 연구는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교회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교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탈퇴자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정착을 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목회적 돌봄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이들의 교회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방해요인과 촉진 요인에 근거할 때 교회는 탈퇴자들의 교회정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개인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단체를 의미하며(김성훈, 2013), ‘사이비’는 겉으로는 종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시자를 하나님의 대변인이나 직통 계시자로 추앙하는 영적 착취 집단을 지칭한다(노연상, 2021). 이단이 성경을 왜곡함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사이비는 신도들을 착취하며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천지와 같이 이단이면서 동시에 사이비적 특징을 가진 단체들을 다룬다. 그리고 ‘탈퇴자’란 이단·사이비 단체에 경도된 사람들이 해당 단체의 교리적 모순이나 도덕적 타락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소속 단체와 관계를 끊고 벗어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이단·사이비 단체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나뉜다. 첫째는 입교 원인에 관한 연구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노지민, 유영권, 2023; 유영권, 2012; 최상은, 2016; 전형준, 2014), 기존 교회의 기능 부전(유영권, 2012; 반신환, 2012), 가족체계의 문제(이준민, 2018)를 규명하였다. 둘째는 탈퇴 전후의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로, 탈퇴자들이 겪는 공허감, 죄책감, 정체감 혼란, 관계적 외상을 밝혔다(김명수, 2021; 노지민, 2022; 유영권, 2021; 백소영, 유영권, 2022). 셋째는 이단종파 이탈자들의 회복요인에 관한 연구로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모델을 제시했다(노성동, 2023).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을 바라볼 때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관계적·신앙적 욕구를 가지고 입교하여, 그 안에서 왜곡된 신앙과 단절된 관계를 내면화하고, 탈퇴 과정에서 심리적·관계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리적 직면, 은혜의 복음, 사랑의 공동체라는 요소들이 결정적임이 기존 사역 모델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한국교회가 성공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게 된 심리적 결핍이나 탈퇴 전·후의 심리적 변화는 비교적 잘 규명하였지만, 탈퇴자들이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적응을 방해하는지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노성동(2023)의 회복 연구는 실질적 적응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적 회복 요인에 중점을 두었기에 탈퇴자들이 교회 적응에 어려움을 주었던 요인들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이단 사역의 현장은 이단 상담소이기에 일반 교회의 목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단 교리 반증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사역자와 이단 사이비·단체 경험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환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이단 상담소를 통해 탈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스스로 탈퇴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탈퇴자들의 심리 상태와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시점이 매우 시급하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95세, 통일교의 한학자와 안상홍증인회의 장길자는 83세, JMS의 정명석도 82세로 노령으로 인한 사망을 앞두고 있다. 70만 이상의 교세를 자랑했던 박태선의 천부교가 교주 사후 명맥만 유지한 상태로 축소된 사례(허병주, 2018)는 교주 사후 대규모 탈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교주 사후 한꺼번에 발생할 탈퇴자들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적응을 방해하고 무엇이 적응을 돕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회적 돌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며, 다가오는 대규모 탈퇴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탈퇴자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에 대한 이해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의 교회정착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경험을 거쳐온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탈퇴자들

이 입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심리적·관계적 취약성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내부에서 왜곡된 신앙과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였으며, 탈퇴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기존 이단 사역의 실천 사례들을 종합하여 탈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배경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그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기존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부작용, 가족체계의 문제로 바라본다.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는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것을 종교 자체에 대한 선택이 아닌 관계 유지를 위한 과정으로 본다. 자신의 심리적 결핍을 해소해 줄 것 같은 따뜻함에 유혹되었다는 것이다.(노지민, 유영권, 2023). 유영권(2012)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결핍은 가족간의 의사소통 단절, 학업 부적응, 심한 좌절감 등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기억들과 관련있는 경우가 많다. 최상은(2016)과 정미숙(2011)은 이러한 현상을 종교중독으로 이해하며, 종교중독의 원인을 어린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찾는다. 이때 이단·사이비 단체는 어머니에게 얻지 못한 정서적·심리적 안정의 대체물로 기능한다. 또한 전형준(2014)은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진로에 대한 불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확실한 미래와 대답을 제공해 주는 이단과 사이비로 부터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유연철(2019)의 연구에서도 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한 청년들이 이단·사이비 단체의 포교 활동에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심리적 내면에는 어린시절 자기애적 상처가 남긴 수치심과 공허감이 있었고, 이단·사이비 단체는 이런 심리적 결핍을 보상에 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유영권(2007, 2012)은 기존 교회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상처받고 그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교회의 폐쇄적 성향으로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거나, 교회가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해주지 못할 때 이단·사이비 단체로부터 공격받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반신환(2012)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원인을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보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개종자는 보상이 더 크다고 자각할 때 가입을 선택하게 되며, 결국 기존 교회보다 이단·사이비 단체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 역시 기존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준민(2018)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것을 종교중독으로 이해했을 때, 중독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원인은 불안이며, 만성불안을 잠재워줄 ‘불안의 저장고’로 종교가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만성불안은 주 양육자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잘 분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고, 가족 안에서 미해결된 애착 문제로 낮은 자기분화 정도를 보일 때 관계 의존적이며 만성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독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관계적·신앙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단·사이비 단체는 이러한 결핍을 왜곡된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다.

2) 이단·사이비 단체 내부에서의 삶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탈퇴자들이 내부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아니다. Arterburn과 Felton(2003)에 따르면 내부 경험은 병든 사고 패턴을 만들어 내고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이들이 내부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피는 것은 이들이 탈퇴 이후 겪는 어려움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김명수(2021)와 노지민(2022)의 연구에 따르면 입교 후의 경험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정적 양상을 보였다.

첫째,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가족에게는 이단·사이비 단체에 다닌다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상황이었으며, 포교 과정에서 들통이 나는 경우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친구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다가 실패한 경우 주변 친구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둘째, 사회와의 단절이다.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내부에서 인정받고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으며, 이단·사이비 단체는 세상이 악하고 그들만 우월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심어주어 신도들을 고립시켰다(김명수, 2021; 노지민, 2022). 셋째, 하나님 이미지의 왜곡이다. 이들이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주를 이루는 존재였으며, 요구와 조건을 채웠을 때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며 실적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종교중독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rterburn과 Felton(2003)은 종교중독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종교에 파괴적이고 위협할 정도로 몰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단 종파에 경도되어 종교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대표적 사례임을 밝힌다. 이들에 따르면 종교중독자는 이분법적 극단 사고, 사실을 거부하는 무효화, 과도한 책임감 등 병든 사고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 패턴은 단체에서 탈퇴한다고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탈퇴자들은 단지 잘못된 단체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와 종교중독적 사고체계, 그리고 단절된 관계망을 내면화한 채 단체를 떠난 사람들이다.

3) 탈퇴 과정과 그 직후의 경험

이단·사이비 단체에서의 탈퇴는 대개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노지민, 2022; 유영권, 2021). 첫째는 가족들의 영향이다. 탈퇴자들은 초반에는 가족들과 갈등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 지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관계가 변화된다. 둘째는 교리적 모순의 발견과 반증교육이다. 가족들의 인내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이단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교리적 모순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진리로 믿고 있던 교리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탈퇴에 결정적인 경험이 된다(유영권, 2021).

그러나 탈퇴는 곧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기도 하다. 진정환(2018)에 따르면 탈퇴자들은 잘못된 단체에 속아있었던 것에 대한 자괴감, 공허감, 허탈감과 우울감 등에 빠져들며 큰 충격에 사로잡힌다. 이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거나 또 다른 이단 단체에 빠지는 일도 있다.

노지민(2022)은 신흥종교 이탈 과정을 심리적·관계적 외상에 가까운 경험으로 본다. 탈퇴 후 청년들의 경우 소속감 없음, 진로에 대한 막막함, 죄책감, 분노감, 교회 적응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의 갈등 및 화해 등을 경험하였으며(유영권, 2021), 기혼 중년 여성들 역시 공허감, 실망감,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 강한 종교심, 죄와 구원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을 응답하였다(노지민, 2022; 백소영, 유영권, 2022). 관계적 측면에서도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과 갑자기 단절되었고, 이러한 관계적 외상은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노지민, 2022).

이는 탈퇴자들이 이단에서 단순히 빠져나온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심리적·관계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시간, 관계 신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이러한 상실은 탈퇴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4) 교회 적응의 어려움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노성동(2023)의 연구에서 탈퇴자들의 회복은 버려진 삶의 회복, 신앙적 회복, 심리적 회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된 요인은 첫째, 이단 상담과 성경공부를 통한 교리적 도움이었다. 탈퇴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는 가운데 신앙적 강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수용과 격려이다. 교회에서 자신들을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경험을 한 탈퇴자들은 신앙적 방향을 종결할 수 있는 결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탈퇴자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교회 정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명수(2021)의 연구에서는 9명의 연구참여자 중 교회에 잘 적응한 경우가 3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완성되지 않으며, 정통 교회로 돌아가 적응하는 과정에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5) 회복의 원리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기존의 이단 사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단·사이비 단체에 경도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역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부터 있어 온 사역이며, 현재 한국교회와 해외에서도 그 실천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성경적 모델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적 거짓 복음에 흔들리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는 교리적 변증을 통한 직면이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항상 기록하던 감사와 송영 단락을 책망으로 대신하면서까지 강경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낸다(Moo, 2018). 그는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변호한 후, 대적자들의 주된 주장인 할례,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정면으로 논박하였다. 둘째는 복음의 적극적 확증이다. 바울은 거짓을 폭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새 시대의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며, 믿음과 성령을 새 시대 백성의 표지로 세운다(Schreiner, 2017; 이한수, 2016). 셋째는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적 회복이다. 바울에게 거짓 복음은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는 것이었고, 진정

한 회복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공동체적 삶 속에서 일어난다.

국내에서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를 통한 이단 사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 산하 26개 상담소를 통하여 매년 약 500여명의 이단 신도들이 정통교회로 돌아오고 있다(정윤석, 2017). 이들의 접근은 가족상담, 교리반증교육, 복음제시 및 후속 교리교육, 공동체를 통한 회복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진정환, 2018). 가족상담으로 시작하여 교리적 직면, 은혜의 복음 경험, 그리고 동질 경험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의 수용 경험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탈퇴자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Atterburn과 Felton(2003)이 새 생명 치유센터를 통해 종교 중독 치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인 극복과 영적 회복, 병든 사고에 대한 직면과 새로운 가치 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적 회복, 그리고 후원자 집단과 가족체계를 포함한 사회적·신체적 회복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 세 사역의 방법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직면이다. 종교중독자는 스스로를 중독자로 여기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회복을 위한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 둘째, 바른 성경 지식을 통한 치유이다. 이단·사이비 단체의 본질이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면, 참된 복음이야말로 이단·사이비 탈퇴자들의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가 될 것이다. 셋째, 공동체를 통한 치유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와 새 생명 치유센터 모두 비슷한 경험자들과 모임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게 하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공동체의 자유와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은 탈퇴자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교리적 직면, 은혜의 복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돌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설계 : 질적 주제분석

본 연구는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가 교회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개인이 부여한 의미와 해석에 기반하여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김유정, 2023). 따라서 참여자를 실험실로 불러들이거나 참여자에게 검사 도구에 응답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연구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는 장소 내에서 오랫동안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Creswell & Creswell, 2022).

본 연구의 관심은 여러 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통해 교회정착의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이라는 ‘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 분석 방법으로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질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주제분석은 특정 인식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료 전반에서 반복되는 의미패턴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본 연구처럼 풍부한 경험적 진술을 분석하는데 강점이 있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김은혜, 김태은, 2024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주제분석은 수집된 자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즉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절차라 할 수 있다(Braun & Clarke, 2006, 김은혜, 김태은, 2024에서 재인용).

2) 연구참여자와 표집

참여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선정하였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를 통해 탈퇴자를 선정하였고, 카카오톡 신천지 탈퇴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조건이 부합하는 탈퇴자를 소개받았다. 선정기준은 ① 기독교 이단·사이비 단체들 중 한 단체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속되었던 자, ② 탈퇴 이후 정통 교회 출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였다. 단체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 단체 경험자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사항과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구분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성별	남	여	여	남	남
나이	38	32	27	42	32
최종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직업	목사	무용수	무용수	수학강사	회사원
결혼여부	○	○	×	○	×
전 소속단체	신천지	신천지	JMS	안상홍증인회	신천지
소속 기간	5년 6개월	1년 6개월	6개월	1년	12년
소속 전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교회적응	○	△	○	○	△
이단상담소	○	○	○	○	×

참여자 1은 20대 초반 신천지에서 5년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탈퇴한 지 13년 정도 경과되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하여 정통 교회를 출석하다가 수능시험을 마친 후 친형을 통해 신천지 사람을 소개받고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경공부를 하다가 입교하게 되었다. 이후 학업을 뒤로하고 군대도 미루며 신천지 생활에 몰두하며 간부 직책을 맡았으나 부모님의 설득으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탈퇴하였다. 현재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

참여자 2는 20대 중반 신천지에서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였다가 탈퇴한 지 8년 정도 경과되었다. 대학생 시절 신천지의 신분을 속인 노방전도를 통해 입교하였으며, 활동하던 시절 1년간 가출 상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고 노숙 경험도 있다. 가족의 요구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원래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였으나 스스로 교회에 다시 적응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3은 20대 중반 JMS에서 6개월 정도 활동하였다가 탈퇴한 지 2년 정도 경과되었다. 잠시 교회를 쉬고 있던 상황에서 JMS 운영 화장품 회사의 제품 리뷰를 부탁받아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만난 JMS 사람과 연락하다가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가족의 설득으로 이단 상담을 받았고, 지금은 회심하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으며 신앙에 있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4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상홍증인회에 입교하여 1년 정도 활동하였고, 현재는 탈퇴한 지 20년간 경과되었다. 가족의 설득으로 이단 상담소를 통해 탈퇴하게 되었다. 현재는 교회에 잘 적응하였으며, 이단을 경험하며 이단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 대한 커다란 실망과 분노가 있었고, 현재도 이단 상담을 하지 않는 교회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다.

참여자 5는 신천지에 먼저 입교한 어머니를 통해 전도되어 고등학생 시절부터 신천지에서 활동하였다. 12년간 활동하다가 탈퇴하였으며 현재 탈퇴한 지 1년 6개월가량 경과되었다. 참여자 중 유일하게 이단 상담소 경험 없이 스스로 신천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탈퇴하였다. 교회는 1년 넘게 출석하고 있지만 스스로 잘 적응하지는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 1인당 1회, 약 50분~70분간 면담하였다. 장소는 참여자가 편안

함을 느끼는 교회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익명 처리 원칙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았다. 면담 질문은 ① 인적사항 및 현재 교회 적응상황, ② 입교 전·중의 경험, ③ 탈퇴 시의 경험 ④ 탈퇴 후 교회 적응 경험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중에는 상호작용하며 추가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심층적 경험과 정서를 탐색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4) 자료 분석

전사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 6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전사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친숙해지고 인상적 진술에 메모를 작성하였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 단위에 개방적으로 초기 코드를 부여하였다. 셋째, 유사한 코드를 묶어 잠재적 하위범주를 생성하였다. 넷째, 하위범주가 코드 및 전체 자료와 일관되는지 검토하며 범주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다섯째, 각 범주의 본질을 규정하고 명명하였다. 여섯째, 범주 간 관계를 종합하여 보고 구조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자료는 ‘탈퇴 전 경험’, ‘탈퇴 시 경험’, ‘교회정착 방해 요인’, ‘교회정착 촉진 요인’의 네 영역과 15개의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5)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엄격성은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다. 첫째,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참여자의 배경과 맥락을 기술하여 이 연구 결과가 자신의 상황에도 적용될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분석결과를 참여자 모두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을 거쳤다. 셋째,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가 이단 상담소 사역자로서 가진 전제와 기대가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가진 현장 경험은 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자원인 동시에 편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석은 연구자의 선입견으로 하지 않고 항상 전사 자료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 보장, 자발적 참여와 철회의 자유, 녹음 및 자료 활용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전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하였고, 인용 시에는 참여자 번호만을 사용하였다. 면담 주제가 외상 경험을 포함하므로, 면담 중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날 경우 면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탈퇴 전 경험, 탈퇴 시 경험, 교회정착 방해 요인, 교회정착 촉진 요인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탈퇴 전 경험

(1) 긍정적 경험: 심리적 욕구 충족

이단·사이비 단체에 속아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던 때의 경험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를 범주화하면 심리적 욕구와 신앙적(영적) 욕구 충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단·사이비 단체에서는 4명의 참여자가 심리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응답하였다. 전우애, 결속력, 동질감, 관심 등과 같이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실현과 관련된 뚜렷한 '목표의식'에 대한 응답도 있었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을 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경험이 강한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 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우애라든지 동지에 같은 게 있었어요. 끈끈한 소속감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 같은 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줬던 것 같아요”(참여자 1)

“거기 사람들이랑 친했고 동질감 일종의 전우애 우리가 옳다 또 뭐 그 기반에 모여든 거니까”(참여자 4)

(2) 긍정적 경험: 신앙적 욕구 충족

신앙적 측면에서도 4명의 참여자가 긍정적 경험을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단·사이비 단체가 올바른 곳이며 이곳에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허황된 믿음을 경험하였다. 특히 참여자 4와 참여자 5는 이러한 믿음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단·사이비 단체에 속아있을 때 비록 그것이 잘못되고 허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는 속아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 가슴을 뛰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당시에 좋았던 건 이제 말세론적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사망도 고통고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막연한 행복이 있었죠" (참여자 5)

(3) 부정적 경험: 과도한 헌신 요구와 경제적 어려움

이단·사이비 단체에서의 경험 중 부정적인 응답은 먼저 과도한 헌신 요구로 인한 체력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신천지에서는 전도 실적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업무 요구가 있었고, JMS에서도 많은 행사에 출석하게 하고 교주의 설교를 모두 녹취하게 하는 등,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며 개인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 이단·사이비 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진 모습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단·사이비 단체를 경험한 탈퇴자들은 5명 중 4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단·사이비 단체가 경제활동 등 개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의 일에 헌신하도록 요구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노숙을 경험한 참여자도 있었다.

"첫 번째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명을 맡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참여자 5)

"저는 가출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핸드폰도 다 끊겼고 일단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어서 노숙을 한 적도 있었고..."(참여자 2)

"왜냐면 생활 자체는 되게 궁핍하고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생활이었음에도..."(참여자 4)

(4) 부정적 경험: 가정불화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은 5명 중 3명이 자신들의 종교를 반대하는 가족들과의 불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참여자 1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다니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왔다고 응답했고, 참여자 3은 활동 기간이 6개월로 짧았기에 크게 경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참여자 5의 경우 가정불화 문제가 탈퇴한 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부모님이랑 당시에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는데 가족 간에 사이가 멀어지는 게 싫었어요”(참여자 2)

“가장 크게 가족하고의 관계가... 이 정도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참여자 4)

2) 탈퇴 시 경험

(1) 심리적 어려움

이단·사이비 단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탈퇴할 때에는 심리적·관계적 외상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는다(노지민, 2022). 먼저는 속았음을 깨달았을 때 공허감, 자괴감, 수치심, 배신감 등을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도 이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 신도들이 자살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김명일, 2020) 자살에 대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 탈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탈퇴자들이 겪는 우울증 및 자살 충동과 연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단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투자했는데 틀렸다는 데에서 오는 공허함과 내가 많은 인생을 잘못된 것에 속아서 허비했다고 하는 자괴감이나 수치심이 있었고...”(참여자 1)

“네 우상숭배를 했다는 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 잘못된 거지같은 되게 뭐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 증상 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자살 충동 그리고 우울증 직결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4)

(2)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은 탈퇴한 후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이미지가 생겼다고 응답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응답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후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주변에서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놔도 아 재 기도 응답했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좀 가소로웠어요 그런 말들이 지랄하네 이런느낌으로? 하나님 존재를 좀 부정하는 느낌이었죠”(참여자 2)

특히 참여자 4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믿었던 경험으로 인해 다시 신앙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면서 심리적 외상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을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 4는 “뭐랄까요 세상을 보는 이게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말 그대로 올인이잖아요. 올인 그랬는데 송두리째 이진 뭐.. 그러니까 이제 선불리...”라고 응답하며 다시 신앙하려고 할 때의 두려운 감정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외상이 되어 신앙생활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지민(2022)이 중년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흥종교의 경험이 심리적·관계적 외상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치한다.

(3) 정체감 혼란

유연철(2019)은 아직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인 청년 초기가 이단·사이비 단체에 경도되기 쉬운 시기라고 지적하였는데 참여자 1의 응답에서도 정체감 혼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단·사이비 단체에 경도된 사람들은 이단·사이비 단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립해 나갔을 것이기에 그 믿음이 깨어질 때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이런 혼란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살충동도 느껴보고 인생에 정말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 하는 혼란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4) 외로움과 고립감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은 강한 소속감과 심리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던 곳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탈퇴하기 전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 중 가족 및 지인들과의 불화를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이를 통해 이단·사이비 단체의 경험이 기존의 관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대로 소속된 이단·사이비 단체 구성원들끼리의 끈끈한 결속력을 만들어 냈을 수 있다.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속된 이단·사이비 단체 안에서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단체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와 가지고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죠. 왜냐면 그 활동을 하다 보니
가 친구들과 연락을 다 끊었으니까 심리적으로 교감을 할 친구들도
없었고 내 인생이 끝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참여자 1)

(5)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탈퇴하기 전 경험 중 긍정적인 경험에서 자신들의 단체에서 종말적으로 성취될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단·사이비 단체가 갖게 하는 이러한 허황된 믿음은 결국 현실을 살지 못하고 허황된 목표를 쫓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 허황된 목표를 향해 과도한 헌신을 요구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들은 탈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때문에 탈퇴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다음에 빨리 뭔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늦춰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죠. 주로 이제 그때는 제 마음에 조
급함과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많았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3) 교회정착 방해 요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모태신앙으로 탈퇴 이후에 모두 교회에 출석하고 적응하려 노

력해 본 경험이 있었다. 이때 적응하고 정착하기 어려웠던 요인들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태도, 거부당할 것에 대한 피해의식, 교리적 혼란이 있었다.

(1)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탈퇴할 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다시 믿음을 가지는 일을 주저하게 했다. 특히 이단·사이비 단체에서는 정통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후 교회 적응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나는 교회에 피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행한 대로 갚아주는 두려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맞다면 나는 너무 나쁜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나 혼나는 게 두려웠어요."(참여자 1)

"첫 번째는 신천지 안에서 일반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도 그래요. 일반교회도 다들 거 없잖아. 일부 그런 교회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교회들만 부각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세뇌된 생각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참여자 5)

(2)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태도

3명의 참여자는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 이후 찾아간 교회에서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지 않은 2명의 참여자는 탈퇴 이후 바로 이단 상담소가 있는 교회에 정착하였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반 교회를 찾아간 모든 참여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한 것이다. 탈퇴자들을 향한 교회의 부정적 태도는 2020년 4월 23일 CBS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CBS 뉴스에서는 신천지 이탈자들을 받아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받아주어야 한다는 반응이 약 64.4%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9.4%,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가 16.2%로 나타났다(천수현, 2020). 이 수치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 교인의 약 6분의 1로부터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 응...눈물 나와.... 냉담? 냉소적인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 근데 나는 나도 되게 죄지은 사람 같은 느낌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되게 나 자신도 되게 움츠러들어서 경계하는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다녔어요."(참여자 2)

"시도가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딱 그 문 앞에 들어가는 순간 신천지 추구꾼 출입금지 팻말이... 그럼 나는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데 들어가면 안 되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참여자 4)

(3) 거부당할 것에 대한 걱정과 피해의식

연구참여자 중 4명은 스스로 거부당할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마음을 열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단 단체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었고 부모님이 시위할 때 시위를 도왔을 정도로 제가 그곳에 굉장히 깊이 몸담고 있었다는 것을 온 교인들이 알 정도였으니까 저를 향한 그런 눈초리와 굳이 수군수군하지 않아도 작은 것들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2)

"아무래도 어떤 교회 특성상 자기 얘기를 터놓고 하고 나눔이나 교제를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적응하기가 쉬운 어떤 그런 환경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교회라면은 탈퇴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울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
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부당할 수도 있고”(참여자 3)

(4) 교리적 혼란과 지적 욕구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은 해당 단체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탈퇴한 후에도 자신이
믿고 있던 교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리적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어떤 것이 올바른 교리인지에 대한 의문
을 가졌다. 이러한 혼란은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해 교회에 정
착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갈급해지는게 진짜를 너무 알고 싶어지는 거
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성경적인 내용이
뭐냐 그래서 계속 딱 되게 중요한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잘못됐
구나 하고 돌이켰지만”(참여자 4)

또한 교리를 다루는 교회의 방식에 있어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5는 이단·사이비 단체에서는 교리공부를 학구적으로 배워온 것에 익숙한데 교
회는 신학교에 가지 않는 한, 설교에 녹여서 가르치거나 잘 가르치지 않으니 답답해하
는 것이다. 더하여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나온 이후 정통 교리에 대한 지적 욕구가 교
회를 통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참여자 4
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설교를 "사실이 많은 설교"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분별력을 심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설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사실이 많은 설교는 힘들더라고요. 말씀에서부터... 제 개인적으로
도 그렇고 괜히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만
듣고 또 어디에 빠지면 나 몰라라 되고 등등의 내가 할 걱정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 교회를 가봤어요 그
게 힘들었고”(참여자4)

4) 교회정착 촉진 요인

참여자 중 3명은 이미 교회에 잘 적응하였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참여자 2명도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출석이 가능했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수용적 태도였고,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의 공감과 지지적 관계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었다. 무엇보다 교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응답한 3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교회정착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꼽았다.

(1) 수용적 태도의 교회 공동체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스스로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그리고 탈퇴자를 대하는 교회의 부정적 태도는 탈퇴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 그런데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교회 공동체의 수용적 태도와 사랑이었다. 참여자 1은 교회 공동체의 수용적 태도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다시 신앙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2 또한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받아주는 친구 한 명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상담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못되게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었죠...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궁할 마음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그때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친한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친구가 좀 의지가 되고 좀 더 용기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었고 그 친구 덕에 항상 그 친구 옆에 붙어 가지고 목장 모임도 나가고."(참여자 2)

(2) 공감과 지지의 관계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가 공감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수용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나 혼자만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가 되어 갔다. 또한 탈퇴 이후에 준비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델링이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 탈퇴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상담소에는 또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가보니까 나는 6년 동안 헛짓거리한 한심한 놈이었는데 그런 한심한 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경험들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었고...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참여자 1)

(3) 은혜의 복음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탈퇴한 후 스스로 교회에 잘 적응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명 중 3명이었다. 그리고 그 3명의 참여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경험은 은혜의 복음이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 탈퇴 후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어떤 공로나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값없이 내 죄를 용서해주셨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든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다시 깨달아졌어요."(참여자 1)

"구원론 들었던 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막연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론 들으면서 그거에 확신이 생긴 게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태초부터 저를 짊어 주셨다고 이

야기를 하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참여자 3)

4. 목회적 돌봄 방안 제안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인 태도, 거부당할 것에 대한 걱정과 피해의식, 교리적 혼란과 지적인 욕구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탈퇴자들이 이탈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상처, 사회적 고립,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 문제는 교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도움을 주어야 할 문제들이다.

반면 교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요인들은 수용적 태도의 교회 공동체, 공감과 지지의 관계,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폈던 이단 사역의 방법들을 종합하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은 교리 반증을 통한 직면, 복음을 통한 치유, 공동체를 통한 치유, 가족에 대한 치유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탈퇴자들의 교회 적응을 위해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래 와 같이 구성하였다.

1) 교리적 접근

연구결과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은 교리적 혼란과 미충족된 지적 욕구로 인해 교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리적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이단 단체로 발길을 돌릴 위험이 있고 교회에 뿌리내리는 일도 어려워지는 만큼,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의 잘못된 교리와 그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른 교리로 그 자리를 채워 진리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회자는 이단의 교리를 단순히 황당한 주장으로 일축하지 말고, 그것을 진심으로 신봉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를 깊이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탈퇴자들에게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의 잘못된 교리와 그 본질을 직면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은 교리를 학구적으로 접하는 데 익숙하고 설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을 위한 설교는 교리 설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을 대하는 교리적 접근은 잘못된 교리에 심취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성경적 회복의 방법이기도 하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바울은 본래 유대교 교리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9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전에 자신이 심취하던 유대교 교리를 완전히 버리고 단절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웠다고 고백한다.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심취했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사상의 교리를 적나라하게 논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바울 역시 잘못된 교리를 완전히 씻어내고, 그 자리를 바른 교리로 채우는 경험을 통해 핍박자와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목회자도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던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잘못된 교리를 완전히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처럼,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에게도 참된 교리교육으로 그 자리를 다시 채워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을 회심하게 했던 그리스도의 방법이며 성경적 치유와 회복의 방법일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대해 김규보(2021: 312)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 되었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이해와 치유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빠진 채 심리학의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실천일 것이다(김규보, 2021).

하지만 목회자들이 정통 교리에 대해서는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수많은 이단 단체들의 교리를 목회자들이 연구하여 반증할 준비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를 위해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을 위해 준비하기 원하는 목회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서는 이단 상담사 전문교육원을 설립하여 한국교회의 주요한 이단 단체들에 대한 교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년 4학기 과정으로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사도 운동, 정명석, 구원파, 인터콥 등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활발한 이단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상담 방법을 배울 수 있다(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2024).

2) 수용적 태도의 교회 공동체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교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목회적 돌봄 과정을 통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교회의 건강한 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한편, 무엇보다 내담자가 교회 안에서 직접 좋은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거절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탈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먼저는 탈퇴자들을 돌봄 사역팀을 구성하여 신뢰할만한 소수의 사람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로 노출 범위를 넓혀 간다. 참여자가 신뢰할만한 친구 한 명으로 시작하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점진적 노출의 효과를 보여준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탈퇴자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어울리고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상처를 치유하는 긍정적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는 말씀처럼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경험은 공동체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열어 응답하시듯 교회 공동체가 탈퇴자의 고통과 형편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함께 아파해 준다면,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경험이 쌓이면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 시각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공감은 그 자체의 과정에서 치료의 효과가 있다.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치료적 실천이다. 그리고 공감은 받는 이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양분으로써 현실을 견뎌낼 힘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내부의 동력이 되어준다(김규보, 2020a). 따라서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은 공감적 관계를 통해 이해받고 격려받으며 치료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외상의 치유 과정에서 치유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는 '언약적 돌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언약적 돌봄'이란 같은 언약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믿음과 사랑, 존경으로 지지하고,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줌으로 서로 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규보, 2022).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다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고 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어느 한 지체가 겪는 고통과 상처를 나머지 지체들이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보살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이 치유를 경험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꺼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정의 회복 돕기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은 그동안 소속되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들로 부터 버려져 고립감을 느끼며 지지체계가 무너진 채 사회적인 고립상태에 처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단·사이비 단체 활동 과정에서 가족과 겪었던 종교적 갈등은 탈퇴 이후에도 관계의 벽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탈퇴자들은 심리적으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족에게조차 먼저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단·사이비에 경도된 사람들은 본인의 종교를 반대하는 가족들이 사탄이 썩었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이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해 왔다(이준민, 2018). 이 때문에 평생을 함께하고 지지해 준 가족들은 이런 모습에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며 가족 관계가 깨어진다. 이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가족들이 내담자가 걸어온 과정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그 결과 가족이 내담자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단·사이비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 때때로 이단·사이비 문제는 역기능적인 가족관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준민, 2018). 그래서 이단·사이비 단체에 빠지기 전부터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의 가족 안에는 이미 역기능적 관계 패턴이 존재했을 수 있다. 역기능적 가족이 트라우마를 축적하는 주요한 환경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김규보, 2020b). 이 때문에 트라우마를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보고 트라우마에 직면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고통을 견디며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 함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역기능적 가족의 모습은 죄에 물든 가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죄에 물든 가족의 모습은 새로운 가족 질서를 형성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질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김규보, 2020b). 따라서 목회자는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가 속한 가정의 상황을 주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그 가정에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하며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서 질서를 회복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될 때,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교회 공동체의 인식 변화

탈퇴자들은 교회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교회를 찾아간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을 때, 정죄받고 외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때 목회자는 이들이 교회에서 가해자로 인식되지 않고 피해자로 받아들여 지도록 도와야 한다. 적어도 교회에서 만큼은 과거의 잘못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금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탈퇴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이들에게 새로운 지지체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탈퇴자들은 이단·사이비 단체 안에서 공감과 사랑, 지지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심리적 결핍을 채워왔다. 그러한 경험이 단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강한 의존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던 만큼, 이제는 교회가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단·사이비 단체를 떠난 사람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고 따뜻하게 품을 만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나 있듯 탈퇴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냉소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인용한 2020년 4월 23일 CBS 뉴스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교회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을 받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4.4% 가량만 받아주어야 한다고 답했다(천수현, 2020). 특히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16.2%의 성도들은 탈퇴자들이 교회 적응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일 것이다.

신천지 탈퇴자들이 그동안 교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 수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탈퇴자들은 이미 깊은 피해의식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단 한 명의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에 발을 들이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게다가 수용에 동의한 64%가 탈퇴자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회자는 사이비 교주들의 사망을 앞두고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설득하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주 사망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 교회가 탈퇴자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지지 체계가 되어 준다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된 피해자는 이제 새로운 탈퇴자들에게 동질 경험자로서의 공감과 지지를 제공해 줄 치유자가 되어 치유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5) 은혜의 복음

탈퇴자들은 심리적 외상을 입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생성되어 교회정착을 방해받는다. 은혜의 복음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하고, 은혜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목회자는 상담 과정에서 먼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여 다루어 주어야 한다. 탈퇴자들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죄책감을 넘어서 '나는 헛된 세월을 보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자기비하와 수치심을 느꼈다. 상담자는 회개가 필요한 죄책감과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할 수치심을 분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 구원으로 내면화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해야 한다.

김규보(2020c)는 "자기 형성과 트라우마, 은혜의 치료적 기능"이라는 논문에서 은혜의 치료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소유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의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된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장애 및 질병, 고통,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취된,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입혀진 은혜이다"(김규보, 2020c: 29).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받고 있는 탈퇴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건강한 정체성을 얻으며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주입된 행위 중심의 구원관으로 인해 율법적이고 억압적인 신앙을 몸에 익혀온 탈퇴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 비

교할 수 없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된다.

은혜의 복음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서는 교리교육을 통해 자신이 속했던 이단·사이비 단체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한 뒤에는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정윤석, 2017). 탈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약물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오랜 사역 현장의 경험은 은혜의 복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깊은 치유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헛된 세월을 보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와 수치심은, 은혜의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진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체되며, 거짓된 곳에서 자신을 건져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비로소 탈퇴의 경험이 고통이 아닌 감사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점차 사그라들고, 탈퇴자들은 조급함 없이 자신의 미래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건강하게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이 정통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교회정착을 방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목회돌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은 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②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태도, ③ 거부당할 것에 대한 피해의식, ④ 교리적 혼란과 미충족된 지적 욕구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교회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은 ① 수용적 태도의 교회 공동체, ② 공감과 지지의 관계, ③ 은혜의 복음의 세 가지였다. 이를 토대로 교리적 접근, 수용적 교회공동체 형성, 가정의 회복 돕기, 교회 공동체의 인식 변화, 은혜의 복음을 통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재구성을 목회돌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주 사후 이단·사이비 신도들의 대대적인 탈퇴 사례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예측하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

었다. 그동안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에게 무관심하던 교회들이 이 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느끼고 탈퇴자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면, 연달아 무너질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이 대거 교회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단 상담소가 아닌 일반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와 상담방안을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목회적 돌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주 사망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탈퇴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탈퇴자를 품기 위한 구체적 준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의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독교 이단·사이비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교회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더 다양한 이단·사이비 단체의 탈퇴자들을 다루고자 할 때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함에 한계점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5명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이 중 4명이 이단상담소 경험이 있으며 전원이 모태신앙 배경이라는 점에서 표집의 편중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담소 경험이 없는 비신앙 배경 탈퇴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이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JMS 단체의 탈퇴자들로 제한되어 폭넓은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자의 탈퇴 후 경과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서 20년까지 큰 편차를 보여, 회복 단계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를 통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현상들을 심리이론들과 접목하여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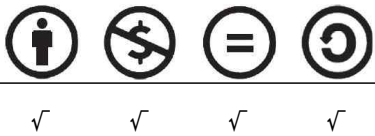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신천지, 통일교, 안증회, JMS 등 다양한 단체의 탈퇴자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단체 특성에 따른 정착 과정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퇴 직후부터 일정 기간을 추적하는 연구를 통해 회복의 단계적 변화와 교회정착의 장기적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연구가 제안한 목회돌봄 방안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이단·사이비 단체 교주들의 사망이

예측되는 현시점에서, 한국교회의 학자들과 목회 현장이 함께 준비할 때, 탈퇴자들의 교회정착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6년 05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6년 07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7월 08일



【참고문헌】

- 김규보 (2020a).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트라우마와 긍휼의 실천. **복음과 실천신학**, 57, 9-47.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25309/kept.2020.11.15.009>
- 김규보 (2020b). 트라우마가족 역동에 대한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8(2), 33-76.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17841/jocag.2020.28.2.33>
- 김규보 (2020c). 자기 형성과 트라우마, 은혜의 치료적 기능. **복음과 상담**, 28(1), 5-50.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17841/jocag.2020.28.1.5>
- 김규보 (2021). 성경의 명료성이 상담 실천에 갖는 함의에 대한 고찰. **충신대논총**, 41, 293-328.
- 김규보 (2022).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생명의말씀사.
- 김명수 (2021). 신천지에서 탈퇴한 20대 청년들의 심리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미 (2016).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신학과실천**, 48, 285-305.
- 김성훈 (2013). 이단에 대처하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이단예방교육연구: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정 (2023). 질적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따른 어려움과 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상담학분야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혜, 김태은 (2024).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 여성 청소년 환자의 집단미술 치료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미술치료연구**, 31(6), 1147-1166. <https://doi.org/10.35594/kata.2024.31.6.001>
- 노성동 (2023). 이단 종파 이탈자들의 회복에 관한 연구. **신학과실천**, 86, 275-303.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14387/jkspth.2023.86.275>
- 노연상 (2021). 사이버 종교 범죄의 현황과 대책. **인문사회과학연구**, 29(2), 36-59.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22924/jhss.29.2.202108.002>
- 노지민 (2022). 기혼 중년여성이 경험한 신흥종교 입탈퇴 과정의 체험성과 정신화에 관한 질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지민, 유영권 (2023). 기혼 중년여성이 경험한 신흥종교 입탈퇴 과정의 체험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4(4), 9-52.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22924/jhss.29.2.202108.002>

shin.ac.kr/10.23909/kjcc.2023.11.34.4.9

반신환 (2012). 신흥종교집단의 개종과정과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154-174.

백소영, 유영권 (2022). 신흥종교 이탈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3(3), 139-172.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23909/kjcc.2022.5.33.3.139>

엄순옥 (2017). 종교중독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영권 (2007). 사이버·이단 교주와 신도들의 심리이해: 목회상담적 제언. **신학과 실천**, 13, 79-106.

유영권 (2012). 신흥종교에 빠진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107-128.

유영권 (2021). 신천지 이탈 청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74, 359-386. <https://dx-doi-org.proxy.chongshin.ac.kr/10.14387/jksph.2021.74.359>

유연철 (2019). 기독교 이단 신흥종교에 경도된 성인진입기 세대의 종교중독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준민 (2018).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중독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한수 (2016). **바울사도가 쓴 리브레티**. 솔로몬.

전형준 (2014). 이단자들의 심리이해와 목회상담학적 대책. **개혁논총**, 30, 297-328.

정미숙 (2011). 종교중독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정환 (2018). 선교적 관점에서 본 이단 상담 사례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상은 (2016). 종교중독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병주 (2018). 사이버이단 천부교 제1대 교주 박태선 장로의 사상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terburn, S., & Felton, J. (2003). **해로운 믿음** (문희경 역, *Toxic faith: experiencing healing from painful spiritual abuse*). 조이선교회. (원전 1991 출판).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22). **연구방법 질적·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5판** (정종진 외 공역,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5th ed.). 시그마프레스. (원전 2018 출판).

- Moo, D. J. (2018). **갈라디아서** (최원용 역,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부흥과개혁사. (원전 2013 출판).
- Schreiner, T. R. (2017).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김석근 역,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alatians*). 디모테. (원전 2010 출판).
- 김명일 (2020). 20대 신천지 신도 극단적 선택...코로나19 사태 후 벌써 3번째 신도 사망. 한경일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31817467>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 김충일 (2020a). 신천지 이탈자 수용을 원하는 교회를 위한 매뉴얼(상). 기독교포털뉴스.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 김충일 (2020b). 신천지 이탈자 수용을 원하는 교회를 위한 매뉴얼(하). 기독교포털뉴스.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4>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 정윤석 (2017). 올해도 이단 상담 1순위는 신천지. 기독교포털뉴스.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2>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 천수현 (2020). 개신교인 66% 신천지 이탈자 받아줘야. CBS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4F0j-95j5LU>에서 2023년 11월 26일 인출.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2024). 이단상담사 전문교육원. <https://jesus112.modoo.at/?link=9wcs519q>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Abstract]

**A Study on Pastoral Counseling Method for the Church
Adjustment of Cult Survivors**

Kim, Chung Il* Kim, Kyu Bo**

This study explores the difficulties cult defectors face when returning to mainstream churches and proposes pastoral care strategies to support their restoration of faith and church adjustment.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five defectors from three cult groups—Shincheonji, JMS (Providence), and the Church of God, Witnesses of Ahnsahng Hong. Semi-structured interviews examined participants' experiences before, during, and after leaving the cult, and the challenges of church adjustment. The findings identified four barriers to church adjustment: (1) negative perceptions of God and the church, (2) cynical or dismissive attitudes within the church community, (3) heightened sensitivity to rejection, and (4) doctrinal confusion and unmet intellectual needs. Three factors promoted successful adjustment: (1) an accepting church community, (2) empathetic relationships with others who shared similar experiences, and (3) an experience of the gospel of grace. Based on these findings, five pastoral care strategies are proposed: (1) a doctrinal approach, (2) fostering an accepting church community, (3) restoring family relationships, (4) changing the church community's perceptions, and (5) presenting the gospel of grace. As more defections are expected due to the aging leadership of major cult groups, this study offers guidance for helping the Korean church support cult defectors' integration into churches.

Key words: ex-members of heretical sects, church settlement, pastoral care approaches, religious addiction, conversion ministry

* Korea Christian heresy Counseling Association, Headquarters Counseling Center / Chief Counselor

**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Assistant Professor